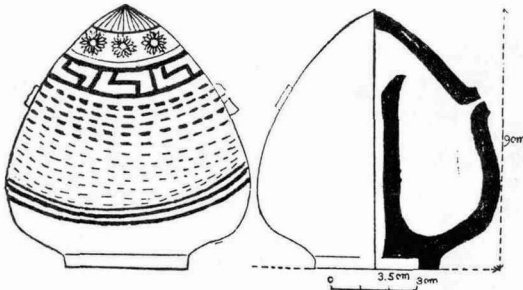


粉青沙器水滴實測圖



目水滴이 있으나 施文에 있어서는 器體의 上, 中, 下에 二條乃至 三條의 線文帶가 둘러 있을 뿐이다. 窯技나 施文 등으로 보아 鷄龍山窯^②인가 하며 十五世紀乃至 十六世紀의 것으로 推定된다.

註 ① 一九二七年度古蹟

調査報告(鷄龍山 麓陶窯址調査報告) 圖版第七五(二)刷毛 目水滴

② 忠清南道公州郡反 浦面鶴峰里第一陶 窯址——第六陶窯 址

되어있다. 굽다리의 中央底部에는 小圓孔이 뚫려서 圓管狀으로 器內에 貫通되어 있으며 側面에 注口가 있어서 器體를 기울여 물을 달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注口는 缺失되어 있어 仔細히 알 수 없으나 元來는 어떠한 物體를 象形하였던 것으로 推測되며 이 注口의 反對되는 側面에 破損된 突起가 殘存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注口와 相對되는 修飾인가 한다. 色胎土에 白象嵌을 했으며 灰青色의 透明釉藥이 끼워진 粉青沙器이며 器體의 施文手法이 비교적 精密한 便이라고 할 수 있다. 器底와 그 굽다리 周邊에는 施釉가 疎忽히 取扱됐지만 器體 上部로 이를수록 文樣이 아름답다. 器體 下半部에 三條白線帶가 둘러 있고 그 위로는 繩簾文을 押捺하였고 다시 그 위에는 建築物의 勾欄에서 볼 수 있는 一種의 雷文帶(雷文帶)를 돌렸으며 그 위로도 押捺象嵌한 小菊輪 數個로 둘러 있고 上尖部에는 直線을 放射狀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類例로서 는 일찍이 日人 野崎朝吉氏 藏으로 되어 있는 粉青沙器(水滴水滴)所謂 刷毛

安東의 仁王石像^①

黃 壽 永

邑內 太華洞 敬덕 中學校 앞 高臺에는 雲臺寺^②와 關王廟가 있어 羅代의 石物들이 散在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曠感樓 앞 左右의 岩上에 對立하고 있는 長方形板石二枚의 仁王石像은 注目할 만 하다.

〔其一〕 向右의 一石으로서 高一 m 二四 幅五五 cm 厚二七 cm 인데 一面에 彫刻되었었다. 仁王의 身高一 m 로서 圓形의 頭光과 蓮花臺座를 上下에 새겼다. 頭上에서 圓形結髮이 보이며 身部에는 頸環 腕足釧等 莊嚴具가 있고 右手는 들어서 長大한 金剛杵를 들었고 左手는 垂下現掌하였었다. 左足은 蓮花座를 밟았으며 右足은 들어서 무릎과 右腕이 接하고 있어 動作의 一瞬을 교묘하게 잡아서 잘 表現하였었다. 天衣는 兩腕에 걸쳐 身部 兩側을 따라 曲線을 그렸으며 裳衣는 脚上에서 주름을 잡고 있다. 頭大 短軀인데 筋骨의 사실의 表現과 手足의 動的인 彫法은 此種 遺品中의 優作으로서 新羅統一期로 推定된다.

〔其二〕 向左의 兩面彫刻의 一石으로서 高一 m 一七 幅五五 cm 厚三四 cm 인데 其一에 比하여 石質이 粗雜하며 磨損이 甚하다. 前面은 身高九十 cm 로서 蓮花座上의 立像인 바 頸飾이나 天衣等의 表現은 其一과 거의 같다. 다만 右手는 주먹을 쥐어서 頭上에 들었고 左手는 垂下하였었다. 背 面像은 身高八四 cm 로서 單蓮座에 섰는데 樣式은 前面과 거의 同一하다. 〔其一〕의 高肉彫입에 比하여 低彫(특히 背面)되었는데 年代는 또한 新 羅統一期로 推定된다.

以上 兩例는 모두 未詳의 他處에서 現位置로 移動되었으나 樓前의 守 門將의 役割을 맡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同一하다. 이들은 元來 佛敎造型으로서 塔塔의 龕室入口左右에 配置되었거나 〔其一〕 또는 그 같은 築造物의 門扉 〔其二〕로 짐작된다. 安東地區에는 塔塔이 集中되고 있는 바 이

들은 경주 芬皇寺塔以來의 傳統的手法(安東一直面五層塔塔龕室入口左右의 仁王板石等)을 따르고 있어 그에 속하던 遺品으로 推定하고저 한다. 특히(其一)은 保護할만하다(九月二十三日 調査)

註 ① 이 石物은 馬鬪樹氏夫人이 調査한 바 있어 그의 敎示에 따르는 것인데 이 곳에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② 이 곳에는 羅代의 石燈 佛座石材들이 庭中에 散亂하고 있는 바 모두 收拾되어야 할 것이다. 西岳寺의 舊基라고 傳한다.



青花白磁詩銘瓶

孟 仁 在

長頸式瓶이며 등치는 鈍重한 球形、頸部는 힘이 빠져 이런 類의 瓶이 갖는 典型을 看取하긴 어렵다. 釉面도 潤氣가 不足한 不透明靑白色이며 黃褐色釉裂이 등성등성하여 一見末期의 粗作인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缺點때문에 이 瓶의 格調가 형편 없이 깎이지는 않는다.

등치 兩面에는 畵된 栢榴折枝가 한개씩, 그리고 이들 가지에는 열 것으로 보이는 매미가 한마리씩 그려져 있다. 나무의 輪廓은 濃靑、잎과 栢

榴는 淡靑 栢榴알은

鱗魚처럼 淡靑으로

돌리고 그 안에 辰

砂를 點綴했다. 이

辰砂의 發色은 鮮明

하여 栢榴알은 반짝

빛나고 매미와 더불어

어 季節의 情趣를 자

아닌다. 鈎勒填彩式

이라고 할 이 그림

은 陶工들의 손을

通해서 되풀이 되는 동안 얻어진 非專門的인 形式이며 그림 밑에 쓰인

다음과 같은 行書 五言詩의 筆者는 時代觀照에 敏感한 別個의 人物이었

을 것이다.

隨時樹陰間

蟬啼淚難看

青花빛갈의 濃侈、形狀의 解弛가 製作年代를 스스로 말하지만 이런 類의 瓶으로서 는 보기 드문 詩句를 그와 같은 時期와 結付시켜 吟味해도 不自然하진 않을 것이다.

分院末期의 衰退한 作風에 傳統的 窯業의 終焉을 目前에 그려놓은 것 같은 時代色이 짙은 佳作이다. 높이 一〇.五cm(全忠信氏藏)

堤川 月岳山 德周寺址의 調査

鄭 永 鎬

德周寺의 記錄은 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 忠州牧佛宇條①에 보이는 바 이 古刹은 六·二五 動亂時 全燒된채 아직 重建되지 못하였다. ② 忠北 堤川郡 寒水面松界里 月岳山 中腹의 寺址③에는 磨崖石佛等 數點의 遺

